

농업기술센터에서의 농촌사회교육의 개선방안

- 경기도 양주군을 중심으로 -

김수욱* · 박성래** · 김민정***

*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교육공학과 · **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교육공학과 ·

*** 양주군 농업기술센터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ural Life-Long Education in Agricultural Technology & Extension Center - Focused on Yangju-Gun -

Su-Wook Kim* · Sung-Rae Park** · Min-Jung Kim***

* Coll. of Edu., Konkuk University

** Coll. of Edu., Hanyang University, *** ATEC., Yangju-Gun, Korea

Summar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1) to identify the present situation and pending problems of agricultural education in Agricultural Technology & Extension Center (ATEC), (2) to analyze the satisfaction degree and educational needs of agricultural extension education program, and (3) to draw some implications in the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agricultural extension, based on the analysis aforementione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s from 230 farmers. Based on the results of study, the recommendations were as follows.

1. Increase of income could not guarantee the improvement of QOL. So, ATEC should make some efforts to plan and administer diversified agricultural extension and education programs.
2. Agricultural practice was the most effective educational methods. Especially, for return-migrants and young farmers, applicable educational program should be planned and offered.
3. Education program on agricultural information, especially on the internet use, would be the most attractive program of agricultural extension education in the future.

Key Words : Agricultural Education, Agricultural Extension, ATEC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와 같은 급격한 변화의 사회에서는 학교 교육에서 습득하는 지식과 정보만으로 사회생

활을 영위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에 따라 많은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통하여 누구나 평생을 거쳐 지속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사회 교육법과 그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도시를 중심

으로 사회교육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이버대학과 같은 언제 어디서나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촌에서의 사회교육은 비록 명칭은 달리 할 지라도, 1950년 이전부터 농촌지도사업의 일환으로 농촌계몽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술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실시되었다(정지웅, 1989). 그러나 예전과 달리 오늘날의 농촌은 농업기술에 관한 관심 못지 않게 사회, 문화, 복지 등 전반에 걸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농촌에도 광통신망의 확충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컴퓨터의 보급률도 점차 높아져 정보통신교육, 원격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이 가능해지고 있다.

이같은 농촌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되고 있는 농촌사회교육은 농업기술 교육과 농업경영교육에 집중되어 있다. 농업인 개개인의 실질적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개선 교육은 전체 교육에 비하면 아주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교육내용 역시 매년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새로운 교육과정을 이수하기가 쉽지 않다. 이마저 각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 영농철이 따로 없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교육의 기회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의 농촌사회교육은 각종 환경변화에 알맞은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통하여 대부분의 농업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농업인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특히, 대다수의 농업인이 원하는 내용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선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촌사회교육의 실태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농촌사회교육을 위한 교육내용과 교육방

법에 관한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되고 있는 농촌사회교육의 실태를 분석하고, 농업인의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파악하여 농촌사회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되고 있는 농촌사회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둘째, 농촌사회교육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도를 조사·분석한다.

셋째, 이를 통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되는 농촌사회교육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농업기술센터에서의 농촌사회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1. 농촌사회교육의 현황

2001년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되고 있는 농촌사회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나뉘어져 있으며, 모든 교육이 집합에 의한 교육이다(경기도, 2001). 첫째, 영농기술교육으로 농업의 개방화·세계화 등 농업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발된 신기술의 보급이나 농업인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기술 습득 및 경영능력향상을 위한 과정이다. 둘째는 농업기계교육으로 영농활동에서 농업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농업의 기계화를 통한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각종 농기계의 기능 및 작동방법의 습득을 통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과정이다. 셋째는 생활개선 및 청소년과정으로 농촌여성과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 및 향상과 농업인 후계자로 육성

될 수 있는 농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영농기술교육

영농기술교육은 12개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과정 별로 1일에서 4일까지 교육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실시기관에 있어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의해 자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은 4개 정도로 전체 과정 중 1/3을 차지하고 있다. 희망농업인과 교육내용에 따른 대상자의 선정에 의해 대상자가 선정되고 있다.(〈표 1〉 참고).

나. 농업기계 교육

농업기계교육은 8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과정 별로 1일에서 3주까지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실시기관은 농기계의 확보와 전문교육인력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교육이 도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농업기계교육은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희망농업인 보다는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이 주 대상이 되고 있다(표 2) 참고).

다. 생활 개선 및 청소년 교육

생활 개선 및 청소년 교육은 크게 여성농업인 및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으로 구분된다. 특히, 농업인력의 부녀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이 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청소년 전문교육을 제외한 교육의 대상은 여성농업인이다(〈표 3〉 참고).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은 농업기술교육이나 농업경영, 농기계 교육과 같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촌생활개선 교육은 전체 교육과정 중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대상자가 여성농업인으로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육방법은 집합에 의한 교육방법을 택하고 있었으며, 실시기관은 도 단위가 많은

〈표 1〉 영 농 기 술 교 육 과 정

과 정 명	기 간	실시기관	대 상
□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	3~4일	중앙	교육희망 농업인
□ 전문농업인 교육	2~3일	중앙	교육희망 농업인
□ 명예지도사 품목별교육	1일	도	명예지도사
□ 품목별 농업인조직체 전문교육	1~3일	도	품목별 도단위 연구회원
□ 전문경영인 교육	1일	도	전문경영인으로 선발된 자
□ 논농업직접지불제 교육	1일		직접지불제 신청 대상농가
□ 영농공개강좌	1일	도	주산지역 교육희망 농업인
□ 전문농업정보 교육	3일	도	정보화 교육 희망 농업인
□ 새해영농설계 교육	1일	시·군	교육희망 농업인
□ 품목별 상설교육	1일	시·군	품목별 교육희망 농업인
□ 농업정보 활용교육	3일	시·군	정보화 교육희망 농업인
□ 당면과제 현장 교육	2일	시·군	교육희망 농업인

출처 : 경기도, 2001.

<표 2> 농업기계 교육과정

과 정 명	기 간	실시기관	대 상
□ 농업기계 전문농업인 교육	2주	중앙	교육희망 농업인
□ 기계화 영농사 교육	2주	도	기계화 영농 희망농업인
□ 선도농가 기계화영농사	3주	도	영농사 자격취득 희망농업인
□ 농기계 정비반	4일	도	농기계 실수요자
□ 여성농업인 농기계반	4일	도	농기계 실수요 여성농업인
□ 취농인 농기계교육	1주	도	취농인 및 귀농희망자
□ 농업기계 현장 이용기술 교육 (여성농기계 교육)	1일 (1일)	시·군	농기계 실수요자 농기계 실수요 여성농업인
□ 농업기계 안전운행 교육	1일	시·군	기대 보유농가

출처 : 경기도, 2001.

<표 3> 농업기계 교육과정

과 정 명	기 간	실시기관	대 상
□ 농촌여성 대표지도자 교육	2일	중앙	생활개선회장단
□ 농촌여성 지도자교육	1~2일	도	생활개선 회원 및 여성농업인
□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	1일	도	교육희망 여성농업인
□ 농촌여성 과제교육	1일	시·군	생활개선 회원
□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1일	시·군	교육희망 여성농업인
□ 청소년 전문교육	1일	시·군	교육희망회원

출처 : 경기도, 2001.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농촌사회교육의 문제점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과정을 토대로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교육이 생산 및 경영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의 대부분이 생산 및 경영기술 등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가의 수입증대를 위함이다(이영대, 1994). 즉,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교육이나 보다 나은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경영교육을 통하여 농가경

제의 향상을 가져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풍요만이 농업인의 삶을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화적, 사회적 만족 역시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요인이다(하성재, 1993). 현재의 농촌은 교육, 교통, 후생, 의료들과 같은 각종 사회기반시설이 도시에 비하여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지만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또한, 농업인들의 학력수준이 향상되고 기계화 영농에 따른 여가시간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00). 이러한 농촌생활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농가경제 향상이라는 대전제아래 여가활용, 문화생활과 같은 교육은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생활개선을 위한 교육이 일부나마 이루어지고 있으나(경기도,

2001) 대상자가 여성농업인으로 국한되어 있으며, 교육내용 역시 농촌생활의 전반에 걸친 개선보다는 가정생활의 개선에 국한되어 있다.

둘째, 교육방법의 대부분의 교육이 집합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많은 분야에서 이를 활용한 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교육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교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강상현, 1997). 그러나, 농촌사회교육은 여전히 집합에 의한 교육방법을 택하고 있다(이영대, 1994). 농업인의 경우 도시의 근로자와 달리 근로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며, 매일같이 관리가 필요한 농작물의 특성상 일정기간 교육을 위하여 투자할 시간적 여유를 갖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집합교육은 형식적인 교육이 될 우려가 많다.

셋째, 농업기술센터 주관 교육의 비중이 낮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교육 대상자의 선발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을 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실시하고 있는 교육의 상당부분이 도나 중앙에서 실시되고 있어, 농업기술센터 자율적인 교육과정의 개발 및 편성의 권한이 축소되어 있다(이영대, 1994).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중앙 단위의 기관보다 농업인의 교육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기 쉬우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편성이 가능하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의 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권을 부여하여 지역

과 농업인의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경기도 양주군 소재 농업인을 모집단으로 하고 무작위 표본추출을 하여 250명을 대상으로 농업인들의 농촌사회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를 조사하였다. 총 배부된 250부 중 회수된 질문지는 243부로 회수율은 97.2%이며, 이중 통계 처리가 불가능한 13부를 제외하고 총 230부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자료의 처리는 SAS/6.08 프로그램에 의해 전산처리 하였으며, 주요 통계방법은 빈도와 교차제표(cross tabulation)이다.

IV. 농업인의 농촌사회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1. 농촌사회교육의 실태

농업인의 교육 참여도를 살펴보면, 영농기술교육이 다른 교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연평균 참여회수가 많았다. 남성이 3.6회로 여성보다 매우 높았다. 영농경력이 높을수록 영농기술교육에 대한 참여도가 높았다. 농기계 교육에 있어서는 영농기술과 달리 여성의 참여율(1.6)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은 여성의 영농활동 참여율의 증가에 따라 여성 역시 농기계사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생활개

<표 4> 농촌사회교육 영역별 참여회수

단위 : 연평균참여회수

구 분	성 별		경 력 별			학 력 별		
	남	여	상	중	하	국 출	중 출	고졸이상
영농기술교육	3.6	0.5	2.3	2.2	1.6	1.2	2.1	2.8
농기계 교육	2.3	1.6	1.7	2.3	1.8	1.9	1.8	2.1
생활 개선교육	0.0	3.6	0.8	2.8	1.8	0.2	1.8	3.4

선교육에서는 남성의 참여율이 전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생활개선 교육 내용이 가정 및 가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의 참여가 어렵게 되어 있다.

농촌사회교육에 대한 참여동기를 살펴보면 <표 5>와 같이, 많은 농업인들이 농촌사회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농촌사회교육이 근본적으로 농민의 자발적 참여와 스스로의 문제해결 능력 배양이 목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긍정적인 현상이다.

<표 6>을 보면 영농기술교육과 농기계교육은 영농에의 활용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생활개선 교육은 다른 교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낮았다. 이는 영농기술과 농기계교육과 같이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교육을 관련성이 높은 교육이라고 인식하는 농업인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으나, 그보다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육이 직업교육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1996년의 도시와 농촌의 평생교육 참여비율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표 7> 참고). 도시와 농촌 모두 평생교육에 대한 참여비율을 비슷하게 나타내고 있는 반면, 직업교육의 경우에는 도시에 비하여 농촌이 월등히 높고, 교양강좌에 있어서는 농촌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활개선교육은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적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를 여성으로 한정하고 교육내용을 의식개혁과 생활개선보다는 가정생활에만 한정하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표 5> 농촌사회교육 영역별 참여동기

단위 : 명(%)

구 분	영농기술교육	농기계 교육	생활개선교육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서	170(74)	172(75)	27(64)
이웃 사람의 권유	9(4)	12(5)	7(17)
공무원 등의 권유에 의해	39(17)	39(17)	5(12)
기 타	12(5)	7(3)	3(7)
계	230(100)	230(100)	42(100)

<표 6> 농촌사회교육의 활용도

단위 : 평균점수

구 분	성 별		경 력 별			학 력 별		
	남	여	상	중	하	국 졸	중 졸	고졸이상
영농기술교육	3.2	3.8	3.2	3.8	3.5	3.5	3.1	3.9
농 기계 교육	4.3	3.4	3.3	4.4	3.9	3.4	3.9	4.3
생활 개선교육	0.0	2.5	0.0	2.9	0.9	0.8	2.2	0.8

※ 5점 척도(매우 높다 - 매우 낮다)의 평균임.

〈표 7〉 도시와 농촌의 평생교육 참여비율 ('96)

항 목	농 촌	도 시
참여자비율	13.1	18.5
직장연수	4.8	10.2
학원수강	1.1	4.1
교양강좌	2.1	3.4
직업훈련	5.5	1.4
TV/라디오 강좌	1.7	4.4

출처: 통계청, 2000.

영농기술교육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다소 만족도가 낮았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농기계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내용을 구성할 때 성별, 학력별로 차별화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교육방법에 있어서는 실습을 통한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강의와 질의응답의 병행으로 나타났다(〈표 9〉 참고). 이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사회교육은 강의위주의 이론교육보다는 실습을 통한 교육이 보다 효과적임을 나타낸다. 특히, 농업경력이 적을수록 실습을 통한 교육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귀농자나 신규영농인의 교육에 있어서 실습의 비중을 보다 높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기간은 〈표 10〉에서와 같이 대체적으로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농기술교육에 있어서는 '적당하다(54.0%)'와 '짧다(40.9%)'라는 응답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영농기술교육의

2. 농촌사회교육에 대한 만족도

〈표 8〉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촌 사회교육의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농기계 교육의 만족도가 4.0점 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8〉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

단위 : 평균점수

구 분	성 별		경 력 별			학 력 별		
	남	여	상	중	하	국 졸	중 졸	고졸이상
영농기술교육	3.7	3.2	3.2	3.6	3.6	3.1	3.2	4.1
농기계 교육	4.2	3.9	3.8	4.3	4.1	4.3	4.2	3.9
생활 개선교육	0.0	3.4	0.0	3.7	2.4	0.4	3.6	2.1

※ 5점 척도(매우 높다 - 매우 낮다)의 평균임.

〈표 9〉 교육방법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 분	성 별		경 력 별			학 력 별		
	남	여	상	중	하	국 졸	중 졸	고졸이상
강사위주	21(10.7)	2(4.4)	7(12.1)	4(2.9)	1(2.9)	14(17.1)	12(12.8)	2(3.7)
질의응답	29(14.9)	6(13.3)	6(10.3)	11(8.0)	2(5.9)	5(6.1)	9(9.6)	6(11.1)
강의와 질의응답 병행	44(22.6)	8(17.8)	10(17.2)	23(16.7)	4(11.8)	4(4.9)	8(8.5)	7(13.0)
공개토론	13(6.67)	1(2.2)	4(6.9)	16(11.6)	5(14.7)	3(3.7)	3(3.2)	1(1.9)
실 습	88(45.1)	28(62.2)	31(53.4)	84(60.9)	22(64.7)	56(68.3)	62(66.0)	38(70.4)
계	195(100)	45(100)	58(100)	138(100)	34(100)	82(100)	94(100)	54(100)

〈표 10〉 교육기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 분	적당하다	짧 다	길 다
영농기술 교육	124(54.0)	97(40.9)	9(5.1)
농기계 교육	182(79.1)	41(17.8)	7(3.1)
생활 개선교육	204(88.7)	7(3.1)	19(8.2)

교육시간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농촌사회교육에 대한 요구도

농촌사회교육 중 농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육은 〈표 11〉에서와 같이,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17.4%)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영농기술교육(16.5%)과 농업유통·금융교육(16.0%) 순으로 나타났다. 농업유통·금융교육과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은 2순위와 3순위에서도 응답을

이 높았다. 반면에 농촌생활개선 교육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요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내용의 개편이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농촌생활개선교육프로그램에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 문화생활, 여가생활과 같은 내용을 보다 확대편성하여 농업인의 요구에 맞는 교육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전문농업인 과정과 전문경영인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농업유통·금융교육을 독립된 교육과정으로 편성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선호하는 교육방법에 있어서는 실습위주의 교육이 4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인터넷 교육(19.1%), 토론식 교육(13%)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농업인들이 실습위주의 교육을 선호하는 것은 영농현장에서 실습을 통해 직접 습득한 내용은 영농활동에서 즉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표 12〉 참조). 따라서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실습의 비중을 높

〈표 11〉 교육 내용에 대한 선호도

단위 : 명(%)

구 분	우 선 순 위		
	1 순 위	2 순 위	3 순 위
농촌생활개선 교육	7(3.0)	11(4.7)	9(3.9)
영농기술 교육	38(16.5)	28(12.1)	24(10.4)
농기계 기술교육	26(11.3)	25(10.9)	28(12.1)
농업유통·금융 교육	37(16.0)	33(14.3)	34(14.8)
영농정책 교육	9(3.9)	25(10.8)	15(6.5)
농업정보 교육	33(14.3)	31(13.4)	31(13.4)
취미와 특기개발 교육	27(11.7)	28(12.1)	32(13.9)
교양과 인격 형성 교육	8(3.5)	15(6.5)	11(4.7)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	40(17.4)	32(13.9)	36(14.4)
학위취득 교육	5(2.2)	2(0.9)	10(4.3)
계	230(100)	230(100)	230(100)

※ 중복응답임.

<표 12> 교육방법에 대한 선호도

교육 방법	명	%
강사 위주의 교육	36	7.8
인터넷 교육	88	19.1
강의와 토론 병행	48	10.4
토론식 교육	60	13.0
실습 위주의 교육	224	48.7
기 타	4	1.0
계	460	100

※ 중복응답임.

이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인터넷 교육의 경우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농활동으로 교육에 대한 시간적 제약이 많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적합

한 교육방법으로 여겨진다. 이와 관련하여, 2001년 농가의 컴퓨터 보유비율은 농림어업 종사 가구의 26.7%로 다른 업종보다는 월등히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표 13> 참고), 인터넷을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비율은 농촌 16.9%로 도시의 12.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표 14> 참고), 효율적인 교육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VI. 농업기술센터에서의 농촌사회교육의 개선방안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농촌사회교육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생활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 삶의 질 향상은 단순한 경제적 수입증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자아를 실현하고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환경의 개선을 통해 농업인 스스로가 변화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식의 전환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생활양식(life

<표 13> 컴퓨터 보유 가구 (2001)

구 분	비 보유가구 (%)	보유가구 (%)	1대 (%)	2대 이상 (%)	100가구당 보유(%)
전 문 관 리	19.9	80.1	70.3	9.7	91.2
사 무	25.0	75.0	69.9	5.0	80.7
서 비 스 판 매	45.3	54.7	52.4	2.3	57.6
농 립 어 업	73.3	26.7	25.8	0.9	27.8
기 능 노 무	45.6	54.4	52.3	2.1	57.0

출처 : 통계청, 2001.

<표 14> 컴퓨터 보유 가구 (1997)

단위 : %

	정보획득	교육	채팅	게임·오락	자료실	홈쇼핑, 홈뱅킹	전자우편	기 타
도시	47.5	12.3	11.5	7.0	15.2	1.7	4.3	0.4
농촌	40.0	16.9	11.3	13.3	11.9	2.1	4.6	0.0

출처 : 통계청, 2001.

style)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문화생활은 피로회복, 휴식, 기분전환, 사회적 가치 인식 및 자아의 발견 등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농업인의 경우 과중한 농업노동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취미와 특기를 개발하는 활동을 통해 생활의 활력소를 찾고, 스스로 생활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에게 문화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농촌사회교육 프로그램에 교양강좌 혹은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들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교육과정의 편성은 기존의 교육과정과 함께 교육에 투자할 시간적 여유를 지니지 못하는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교육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생활개선교육 프로그램의 개편을 통하여, 여성뿐 아니라 남성 농업인 역시 문화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

둘째, 실습교육의 강화이다. 농촌사회교육 특히, 영농기술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한 내용을 현장에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교육을 통해 습득한 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이론적 교육뿐 아니라 실습을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도 이러한 실습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강사위주의 강의식 교육이 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육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론적 강의와 함께 실습의 비율이 보다 증대되어야 한다. 특히, 귀농자 혹은 신규농업인의 경우 이론적 지식은 풍부하나 실제 영농에 있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실습이 중요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습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의 실시이다. 현재 많은 농업관련 정보들은 DB화가 되고,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습득할 수 있다. 농업인 역시 이들 정보를 습득하거나, 온라인 판매와 같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빈도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

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은 거의 실시되고 있지 않다. 물론 농촌의 컴퓨터 보유비율이 낮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영농기술과 같은 면대면 학습이 필요한 교육이 현재의 농촌사회교육의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모든 교육을 인터넷 교육으로 편성할 필요는 없다. 교육과정에 따라, 특히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이나, 학위취득과정, 교양강좌와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통한 강의가 가능한 교육들이다. 또한 같은 과정의 교육에 있어서도 이론적인 내용은 인터넷을 통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실습이나 보다 심화교육에서는 인터넷교육과 기존의 집합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서 영농활동 이후의 시간이나 농한기에 언제든지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촌사회교육이 보다 평생교육적 기회의 제공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단계별 교육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육은 매년 대상자를 달리 할 뿐 반복되거나, 다른 새로운 영농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교육내용으로 구성되고 있다. 그러나, 농촌사회교육은 학교교육과 달리 일정 기간에 과정을 이수하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지속적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과정별로 혹은 교육실시 기관에 따라 단계별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교육내용에 따라 단시일 내에 끝날 수도 있으나,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상반기에는 기본적인 이론교육과 실제 적용의 예를 기준으로 교육내용을 편성하고, 하반기에는 실제 현장에서 실습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단계별 교육이 가능하다. 또한, 중앙에서의 교육은 이론위주로, 도 단위의 교육은 실습위주의 교육을, 시군 단위의 교육은 실제 영농현장에서 적용하는 교육 등과 같이 단계별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단계별 교육은 교육내용의 연계성과 농업인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가는 하나의 단계가 될 수 있다. 또한 도나 중앙단위에 집중되어 있는 교육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할 수 있게

됨으로서 그 지역에 적합한 교육내용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V. 결 론

현재의 농촌은 농업인력의 부족, 부녀화 및 고령화의 문제, 생활기반시설의 부족 뿐 아니라, 사회, 문화, 복지 등 사회 전반의 모든 면에서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다. 그러나 농촌사회교육을 여전히 농업생산성 향상이라는 기존의 목표아래, 농업기술 교육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농업인의 개개인의 실질적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교육은 소외시 되고 있다. 이러한 단편적인 기술교육에서 벗어나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농촌사회교육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질 향상은 단순한 경제적 수입증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자아를 실현하고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환경의 개선을 통해 농업인 자신 스스로가 변화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식의 전환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생활양식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문화생활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농촌사회교육 특히, 영농기술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한 내용을 현장에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교육을 통해 습득한 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이론적 교육 뿐 아니라 실습을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내용과 과정에 따라 현재보다 실습교육의 비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영농활동 이후의 시간이나 겨울과 같은 비교적 한가한 시간을 통하여 언제든지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촌사회교육이 보다 평생교육적 기회의 제공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육은 매년 대상자를 달리 할 뿐 반복되거나, 다른 새로운 영농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교육내용으로 구성되고 있다. 그러나, 농촌사회교육은 학교교육과 달리 일정 기간에 과정을 이수하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지속적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내용의 연계성과 농업인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위해서 단계별 교육과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VI. 참 고 문 헌

1. 강기주, 1994, 농촌지도소의 사회교육실태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강상현, 1998, "정보화시대의 발전전략: 정보화 시대의 교육-온라인원격교육을 중심으로," 정보화시대의 미디어와 문화, 한국사회학회.
3. 경기도, 2001, 2001년 교육훈련 기본계획.
4. 김경미, 1991, "농촌에 있어서 여성과 사회교육,"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3(4):59-66.
5. 김태호, 1990, "전환기 농촌사회교육의 위상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2(3):77-83.
6. 농림부, 2001, 농업인력 확보 및 육성방안연구, 미발행.
7. 서규선 외, 2000, "U턴 귀농자 장·단기 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농촌지도학회지, 7(1):137-154.
8. 서규선 외, 2000, "디지털시대의 농업기술센터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한국농촌지도학회지, 7(2):295-307.
9. 신동완, 1994, "지방화시대 농촌지도사업 기능에 대한 고찰," 한국농촌지도학회지, 1(2):95-102.
10. 윤 욱, 1990, "농촌지역 사회교육의 효율화 방안," 새마을 지역개발연구.
11. 이영대, 1994, "기존 농민을 위한 농촌사회교육 유형분석," 한국농촌지도학회지, 1(1):47-57.

12. 이종만 외, 1998, “농촌사회교육학: 그 정립 가능성에 대하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0(1).
 13. 이종만, 1991, “평생교육 이념하에서의 농촌 사회교육: 그 위상과 발전방향,”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3(4):19-28.
 14. 이종만, 1995, “농촌사회교육: 그 성격과 지향성에 대하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7(1): 33-43.
 15. 정지웅, 1974, “농촌사회교육의 분석: 경기도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12(1):15-29.
 16. 정지웅, 1989, 한국의 농촌: 그 구조와 발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7. 정지웅, 1997, “농촌지도, 농촌사회교육과 지역사회개발,” 한국농촌지도학회지, 4(2):385-392.
 18. 정진석, 1993, “산업사회의 변화에 대응한 위한 농촌사회 교육적 접근,” 한국농업교육 농촌사회교육의 과제와 전략: 농협발전을 학회지, 25(3):74-94.
 19. 최민호 외, 1991, “농촌사회교육학의 학문적 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3(3):1-19.
 20. 최민호 외, 1990, 농촌지도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1. 최민호 외, 1997, “한국의 농촌청소년 사회 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농촌지도학회지, 4(1):147-165.
 22. 통계청, 2000, 한국의 사회 지표.
 23. 통계청, 2001, 농가경제통계.
 24. 하성재, 1993, 도시민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서울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03년 3월 20일 접수, 심사후 수정보완)